

지역 국회의원들 “광주·전남 4곳 경선하자”

재보선 공천방식 의견모아 사무총장·대표에 전달

“신진인사 등용문 돼야”...1~2곳 전략공천 주장도

4곳에서 치러지는 광주·전남지역 7·30 재보선의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경선을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혁신적인 정치신인 공천과 함께 일부 전략공천도 고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재보선에서 경선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대부분이 경선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을 뿐 아니라 안철수·김한길 두 대표도 경선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17일 오전 모임을 갖고 광주 광산, 순천·곡성, 나주·화순, 담양·함평·영광·장성 등 4곳의 재보선지역 공천을 위해 경선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모임 직후 추송용 사무총장이 두 대표에게 건의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의원들은 또 경선 방식과 관련, 인지도 평가가 되는 단순한 여론조사 아닌 집중 토론 후 후보 평가를 하는 방식의 경선을 해야 한다는 뜻과 이번 재보선이 신진 인사의 등용문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두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들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양 대표는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대표 측 관계자는 “안 대표는 호남의 경우 경선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상황을 봐가며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안 대표가 이번 재보선 공천이 개혁·혁신 공천이 돼야 하고 이를 위해 유망한 신진인사의 영입이 필요하다

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한길 대표 측 관계자도 “공천을 받으면 당선 확률이 높은 호남의 경우 경선이 실시돼야 하고 이번 호남지역 재보선이 신진인사의 기회가 돼야 한다는 의원들의 생각을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다만, 경선의 방식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일부 지역의 경우 전략공천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 고위 관계자는 “경선이 원칙이었지만 1~2곳 정도는 양 대표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전략공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당 지도부 주변에서 여전히 나오고 있다”며 “특히 광주 광산을 제외한 전남지역 일부에는 전략공천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또 전남 오찬 모임에서 당 중진들의 호남 출마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고 상당수 의원들이 중진들의 출마 자체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의원은 “중진들의 출마 자체를 막을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전략공천은 안 되지만 경선은 가능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광주·전남지역 한 국회의원은 “중진 출마에 부정적 기류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큰은 표정 문창극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출근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 순천·곡성은 승리 장담 못해

서갑원·노관규 등 출마자 못볼...경선탈락 무소속 출마면 힘겨운 승부

새누리 이정현 출마도 변수

순천·곡성이 광주·전남지역 4개 지역에서 치러지는 7·30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구 가운데 최대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18일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7·30 재보선 가운데 광주 광산, 나주·화순,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구는 ‘공천=당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나 순천·곡성은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선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노리는 입자들이 넘쳐나면서 무소속 출마로 인한

표밭 잡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입지자는 서갑원 전 국회의원과 노관규 전 순천시장, 조순용 전 청와대 정무수석, 구희승 변호사, 정표수 전 공군소장, 김영득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부의장, 고재경 전 강기경 의원 보좌관 등 7명이나 된다.

이에 따라 경선 컷-오프를 통과하지 못한 예비 후보들과 공천이 어렵다고 판단한 입지자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20대 총선이 2년도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소속 후보들은 끝까지 원주, 정치적 기반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는 새정치민주연합 지지 성향의 표심 잡식으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지역구도 극복’을 명분으로 출마에 나서는 새누리당의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도 변수가 아닌 상수로 부상하고 있다.

이 전 수석이 고향인 곡성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얻고 순천에서 그의 진성성을 평가하는 바람이 분다면 전남에서 새누리당 후보 당선이라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지난 총선에서 김선동 의원의 승리를 일궈낸 통합진보당도 만만치 않은 지지 기반이 있다. 우선 농민회와 여수산단을 중심

으로 하는 노동계 등 확고한 지지층을 바탕으로 최소한 두 자릿수 이상의 지지율 확보는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순천·곡성 재보선 구도가 강력 한 지지 기반이 있는 4~5파전으로 전개된다면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혼전 양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순천·곡성의 유권자는 24만여 명(순천 21만4000명, 곡성 2만6000명)으로 투표율 50%와 4~5파전의 선거 구도를 가정한다면 적게는 3만5000표, 많게는 4만표 정도를 얻으면 당선이 가능한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순천·곡성의 경우, 경쟁력이 후보 검증과 경선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며 “특히 경선에서 잡음이 생긴다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정가라운지

김승남, 선원법·해사안전법·해운법 개정법률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18일 세월호 침몰사고로 드러난 현행 해상여객운송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선원법’, ‘해사안전법’, ‘해운법’ 등 3건의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선원법 개정안에는 선박침몰사고 등 비상상황에서 탑승객의 탈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여객선 출항 전 비상 등 고개된 장소에서 안전훈련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해사안전법에는 대형선박의 통행이 잦고 사고위험이 큰 ‘교통안전특정

해역’을 항해하다가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해경이 통항 시각이나 항로변경 등을 명할 수 있는 선박 대상에 대해 여객선도 포함했다. 해운법에는 여객선의 운항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감독하는 운항관리자의 자격요건을 현행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명시하고 운항관리자의 업무부실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오병윤 “문 후보 발원, 친일파 얘기과 다를 바 없어”

통합진보당(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친일 역사관 논란이 일고 있는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대해 “문 후보자 발원은 일제시대 친일파와 부역자들이 하던 얘기와 다를 바 없다”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또 “박근혜 정부의 인사는 참사”라고 규정한 뒤 문 후보자의 일제시대 친일파 및 위안부 발원에 대해 “대한민국 총리후보자의 발원인지 일제하 총독부의 발원인지 분간이 안될 정

도”라고 비판했다. 또 “병역특혜·셀프 급여·셀프교수 등의 의혹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북풍공작으로 대선에 개입한 안기부 2차장이자, 차떼기로 뇌물을 전달한 배달책”이라며 “사퇴하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7:30 재보선 브리핑

신정훈, 나주·화순 출마 선언...“민생정치 앞장”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신정훈(49) 전 나주시장이 18일 민생정치 실현을 내세우며 나주·화순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신 전 시장은 이날 오전 화순군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정치를 통해 서민과 농민이 잘사는 민생정치를 실현하겠다”며 “지방자치 제도개선, 국가균형발전과 혁신도시 완성을 통한 지방살리기, 시민주권을 실현하는 시민정당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출마의 변

을 밝혔다.

신 전 시장은 “이번 7·30 재보선 선거는 호남이 한국정치의 변방으로 남느냐, 아니면 시대변화를 선도하는 중심지로 도약하느냐를 가능케 하는 중대선거”라며 “우리 정치 지형의 근본변화 여부를 판단하는 가능자가 바로 호남의 공천결과로 나타날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영득, 순천·곡성 출마 선언...“정권교체 교두보”

김영득(54)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18일 순천·곡성 선거구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 부의장은 “이번 선거는 2017년 정권교체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선거이며, 민주개혁진영의 정권교체에 힘이 될 유능한 인물을 선택하는 아주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라며 “최근 2차례의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캠프의 직능부문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아 공헌한 제가 이번 재보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순천·곡

성을 정권교체의 교두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순천매산과 순천대 사범대 출신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 상임감사, 민주당 부대변인, 노무현 대통령후보 수행실장, 박원순 서울시장 선대위 직능담당 등을 거쳤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에어컨 없이 살 수 있는 집

신속하고 간단한 뽀칠시공으로 뿌려만주면

3~4°C 실제 내부 온도가 차이가 난다면?

✓ **이지골드코트**는 복사열로 인한 건축물의 내부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뽀칠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의 **복사열을 방지**합니다.

이제 후끈후끈한 열대야에서 해방되십시오.

주택 외벽

계랑기와 지붕

사료탱크

돈사 지붕

적용범위 : 신축 건물 및 복사열 차단이 필요한 외벽, 옥상, 지붕 등
 슬라브 구조 주택 옥상 / 슬레이트 지붕 / 아스팔트 영글 / 주택의 외벽 / 샌드위치 패널 벽체 및 지붕
 기와지붕 / 계랑기와 지붕 / 아치판넬 구조 지붕 / 축사(우사, 돈사, 계사 등) 지붕 / 사료탱크 등

EG GOLD COAT 이지골드코트 **대리점문의** 본사 : 충남 홍성군 갈산면 내포로 1607-19 T. 010-7514-3266 / T. 041-634-9909

(주)홍성이엔지 호남영업본부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1 T. 010-2028-5900 / T. 062-513-1400
 대리점 : 광주남구 T. 010-5679-8100 / 광주서구 T. 010-5609-3500 / 광주광산구 T. 010-3641-9680
 광주북구 T. 010-9431-3445 / 전남순천 T. 010-3633-3663 / 전남여천 T. 010-2788-0392

www.hsegreen.com

2014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안내

1. 전형일정

- ① 원서 접수 : 2014. 6. 13(금) ~ 6. 20(금)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② 전 형 일 : 2014. 6. 26(목) 오후 3:00
* 필기시험 - 신학과(Th.M.), 신학과(M.Div.) * 실기시험 - 음악학과(M.A.)
- ③ 합격자 발표 : 2014. 6. 30(월) 오전 10:00 ④ 등록기간 : 2014. 7. 1(화) ~ 7. 4(금)

2. 모집학과 및 인원 : 56명

대 학 원	학위과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일반대학원	석사	신 학 과 (신학석사 Master of Theology; Th.M.)	9
		신학연구학과 (문학석사 Master of Arts in Theology; M.A.T.)	4
		유아교육학과 (교육학석사 Master of Education; M.Ed.)	1
		음 악 학 과 (음악학석사 Master of Arts in Music; M.A.)	3
신학대학원	석사	신 학 과 (목회학석사 Master of Divinity; M.Div.)	22
교육대학원	석사	교 육 학 과 (교육학석사 Master of Education; M.Ed.)	16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 (교육학석사 Master of Education; M.Ed.)	1
합 계			56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학지로 36 입학문의 ▶ 062) 605-1115, 1024, 1021